

John Donne의 *Anniversaries*: 자신과 세계를 치유하려는 노력

최 예 정

Donne의 *Anniversaries*는 Donne의 patron이던 Robert Drury의 딸 Elizabeth Drury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어진 시이다. 그런데 지나친 칭송과 과장된 이미지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시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Donne을 잘 이해하던 친구 Ben Jonson 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at Dones Anniversarie was profane and full of
Blasphemies;...if it had been written of the
Virgin Marie it had been something¹⁾

이에 대하여 Donne은 비록 그는 Elizabeth Drury를 본적이 없으나 ‘so very good testimony of her worthiness’를 들었으므로 그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 혹은 ‘the Idea of Woman’을 그린 것일 뿐 실제의 그녀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²⁾

사실 Donne이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쓴 다른 悲歌(elegy)들을 보면, 격식을 차린 어구들 사이에서 회미하게나마 그 죽은 사람의 개인적 특징을 짚어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Anniversaries*에서는 많은 비가적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Donne의 슬픔이나, 구체적 인물로서의 Elizabeth Drury의 특징 등은 찾기 어렵다. 그녀는 다만 상징적 존재로서 이 시 속에 등장하며, 그녀의 죽음은 인생과 이 세계의 의미에 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명상의 계기(occasion)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Elizabeth Drury, 혹은 그녀의 죽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Songs and Sonnets*의 빛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무형식의 시(formless poem)라고만 생각되던 *Anniversaries*의 내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Anniversaries*가 Ignatius Royola에 의해 확립된 meditation의 원칙을 따라 구성되었음을 밝힌 Louis L. Martz는 *Anniversaries*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비평적 관심을 촉발시킨다. 그리하여 이 시가 종교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그는 *The First Anniversary*는 Elizabeth Drury를 부적절한 상징으로 사용한 실패작이며 *The Second Anniversary*는 meditation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잘 이용한 성공작이라고 평가한다.³⁾

1) Herbert J.C.Grierson, *The Poems of John Donne*, (Oxford: Oxford UP, 1912), Vol. 2. p. 177.

2) Frank Manley, *John Donne: The Anniversaries* (The Johns Hopkins Press, 1963), pp.6-10, 16-20, 40-50을 발췌하여 *A Norton Critical Edition: John Donne* (New York: Norton, 1966)에 재수록한 글 p.260.

3) Louis L. Martz. “John Donne in Meditation,” *The Poetry of Meditation* (New Haven: Yale

그러나 Martz의 이러한 평가는 meditative structure라는 구조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Anniversaries*를 억지제단하려는 비평태도이다. 오히려 Donne이 연애시를 쓸 때에도 Ovid적 비가를 흉내내어 쓰기는 하나 Ovid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극적 강렬성을 지닌 시를 만들어 내고, “La Corona”나 “A Litany” 같은 종교시를 쓸 때에도 처음에 그것이 근간으로 하던 예배기도(liturgical prayer)나 호칭기도(litany) 형식을 결국은 그의 의도대로 자유로이 변형시켰듯이, *Anniversaries* 역시 meditation의 전통을 이용하기는 하되 그것은 Donne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 따라서 Petrarch의 시와 비교하여 Donne의 시가 Elizabeth Drury를 중심적 상징으로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게 여겨진다. 그보다는 오히려 왜 Donne이, 일견 Elizabeth Drury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간의 원죄와 그로 인한 세상의 부패를 길게 언급한 후 Elizabeth를 칭송하고 애도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한 예로 Frank Manley를 생각할 수 있다. Manley는 Donne의 두 *Anniversary*들이 같은 논리적 연속성을 가진 연작시로서 *The First Anniversary*는 ‘a lament over the body..., a meditation upon death and mortality’를, *The Second Anniversary*는 ‘a vision of the release of the soul from its prison’을 각각 다룬다는 Marjorie Nicolson의 생각을 계승한다. 그리고 Elizabeth Drury는 그 두 세계 즉 이 세상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영혼, 따라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참 지혜(Wisdom)의 개념의 구현이라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Martz가 Elizabeth Drury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일반적인 세상의 타락상을 서술한 것이라고 비판했던 부분들은, Elizabeth Drury의 죽음을 계기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비로소 깨달게 된 이 세상의 타락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세상의 패락과 천상의 기쁨을 올바르게 비교·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볼 때에만이 ‘contempt for the world’와 ‘praise of virtue and its glorification’을 할 수 있게 됨을 Donne이 그려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두 *Anniversary* 각각의 내적 과동을 설명해 주고 또 두 *Anniversary*를 연결시키는 원칙도 설명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Manley가 Elizabeth Drury를, 원죄로 인해 상실했던 Image of God을 우리 내부에 다시 회복시킬 힘을 지닌 ‘참 지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일견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시에서 사용되는 Elizabeth Drury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Harold Love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Elizabeth Drury는 ‘the soul of the world’일 뿐 아니라 ‘the heart of the world’로도 비유되고 있다.⁶⁾ 즉 그녀가 죽음으로써 영혼이 이땅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세계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부패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그 순수함과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UP, 1954), rpt in *Twentieth Century Views of John Donne* ed. Helen Gardn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62), pp. 154-155.

4) Helen Gardner, “The Religious Poetry of John Donne” General Introduction to *The Divine Poems of John Donne* ed. Helen Gardner (Oxford UP, 1952)가 *Twentieth Century Views*에 재수록된 것의 pp. 123-124와 주 2)를 참고할 것.

5) Manley, 앞의 글 pp. 262-264.

6) Harold Love, “The Argument of Donne’s *First Anniversary*” *Modern Philology* 64 (1966) pp. 125-131 rpt in *Essential Articles: for the study of John Donne’s Poetry*, ed. John R. Roberts, (Hamden: Univ. of Missouri, 1975), p. 358.

하고 이 세상의 실장조차 인류의 타락 이후로 시작된 보편적인 부패의 과정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Elizabeth Drury에 대한 칭송은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에 대한 비난의 표현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사실 Elizabeth Drur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문제는, *The First Anniversary*에서는, Donne이 비난하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다. Donne은 우선 이 세계가 병들었음을 역설한다. sick world, 'the wound was deep', weakness, dead, putrefied, lame, cripple, corrupt 등의 어구는 *Hamlet*에서 Cladius가 지배하는 Denmark를 묘사할 때의 disease imagery와의 유사성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세계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병든 상태임을 느끼게 한다. Donne은 사실상 현실 세계에는 '건강'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There is no health physicians say that we
At best enjoy but a neutrality (ll. 92-93)⁷⁾

그리고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 때문이다(For that first marriage was our funeral. l. 105). 그리고 이 때부터 시작된 보편적 타락은 시대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가령 족장시대의 인물들에 비해 당대 사람들의 수명과 키가 훨씬 작아졌다고 Donne이 비탄하는 것은 당대 세계가 누적된 타락과 부패의 해독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The First Anniversary*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중의 하나인 'new philosophy'에 관한 대목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인간의 원죄 이래 시작된 부패와 타락의 길고도 보편적인 연속에서의 최종적·역사적 표현으로서 new philosophy와 그 결과들이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⁸⁾ 뒤집어 말하면 new philosophy와 그 결과야말로 당시대를 특징짓는 불건강성·병약함의 원인인 것이다. 이것은 *The First Anniversary*에서 이 세상의 질병상태에 대한 이미저리가 Introduction 부분을 제외하고는 new philosophy 부분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그렇다면 그 new philosophy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The First Anniversary*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에 의하면, —그것이 성경적 우주관이거나 Ptolemy적 우주관이거나 모두 지구중심적 우주관(geocentrically conceived universe)을 상정하고 있었는데—인간은 원죄에 의해 그 존엄성을 훼손당하기도 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인간은 안정된 가치체계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잘 정의된 관념을 갖고 있었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명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⁹⁾ 전통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적어도 the great chain of being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관해서만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new philosophy는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생각되던 하늘에서도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고, 또 전에는 별이라고 생

7) 이 글에 수록된 모든 John Donne의 시는 *John Donne: The Complete English Poems*, (New York: Penguin Books, 1971) ed. A.J. Smith를 text로 하였으며 앞으로 Anniversaries를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에 행수만 표기하기로 하겠다.

8) Martz, 앞의 글 p. 157.

9) Murray Roston, *The Soul of Wit: a Study of John Donne*, (Oxford: Oxford UP, 1974), p. 102.

각되던 것이 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조차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는 'pure form'인 원(circle)은 사라지고 뱀 같은(serpentine), 즉 나선형의 궤도를 지녀, 그래서 하나님 보다는 지옥의 뱀과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모양만 남은 것을 보게 된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만을 아는 셈이다.

And new philosophy calls all in doubt,
The element of fire is quite put out,
The sun is lost, and the earth, and no man's wit
Can well direct him where to look for it. (ll 205-208).

전통적 철학들이 우주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신념을 구축시키는데 비해 새 철학은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그 의심의 심각성은 태양과 지구 즉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는 중심적 존재의 상실이라는 결과로서 예시된다. Donne이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체는 바로 이 중심의 상실, 믿음의 상실,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뜻하며 이 질병은 이제까지 진척되어 온 부패와 타락의 과정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이러한 new philosophy의 해독은 단순히 지식에서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정치적인 해체까지도 초래하였다. 전통적 인간관계는 단절되었다.

Prince, Subject, father, son are things forgot,
For everyone alone thinks he hath got
To be a phoenix, and that there can be
None of that kind, of which he is, but he. (ll 215-218).

phoenix라는 비유에서 잘 드러나듯이 개인의 독자성, 개체성(individuality)을 강조하는 풍조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Donne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당대의 자유사상가들이 전래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경험에 입각한 논리적 추론만을 믿는 경험주의로 치달고 있을 때에 Donne은 그러한 생각이 일으키는 단절과 혼란을 숙고하며 어떠한 단 하나의 관점도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을 수 없이 모든 것이 'eccentric'하게 된, 즉 천문학적으로 뿐 아니라 세계를 지탱시키는 가치관에서도 모두 중심을 잃은 채 비틀거리는(lame, cripple) 당대인들의 혼란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러한 혼란과 단절, 분리, 해체의 느낌은 "Tis all in pieces, all coherence gone" (l. 213)이란 구절 속에 잘 담겨있다.

Donne의 이러한 사회진단에 비추어 볼 때 그가 Elizabeth Drury를 glue, cement, magnetic force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She that should all parts to reunion bow,
She that had all magnetic force alone.
To draw and fasten sundered parts in one; (ll. 220-223).

즉 Elizabeth Drury는 자기자신의 위치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안정된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올바른 관계맺음을 가능케 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그녀를 자력, 접착제 등과 같은 통합력 있는 존재로 그리면서 preservative, intrinsic balm 등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러한 통합이야말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통합을 가능케 하는 존재인 Elizabeth Drury 조차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도 세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하나의 중심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Donne의 시대인식을 함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Elizabeth Drury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이 세계를 지탱해 오던 가치관·세계관·우주관이 붕괴하며 겪게 되는 과거와의 지적·도덕적인 불연성의 느낌, 그 단절에서 오는 혼동과 혼란상태에 대한 애도이다. 또 그것은 당대의 새로운 천문학적·지리학적 발견,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지닌 사회의 가치를 잠식해 들어오는 개인주의적 생활태도, 경제·사회·정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지는 전통적 위계질서의 붕괴 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믿음에 대한 간절한 회귀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¹⁰⁾

그런데 *The First Anniversary*의 후반부 즉 249행 이하에서 이 세상의 균형과 색깔이 그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말하는 대목에 오면 이제 Elizabeth Drury는 이 세상에 어떤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균형과 색깔의 아름다움의 표본·모범으로서 제시된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상호조화와 균형이다.

She, who if those great Doctors truly said
That the ark to man's proportions was made,
Had been a type for that, as that might be
A type of her in this, that contrary
Both elements, and passions lived at peace
In her, who caused all civil war to cease. (ll. 317-322).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대립 요소들과 격정들의 조화·균형·평화의 상징으로서의 Elizabeth Drury에 대한 찬미는 그와 상반되는 상태를 Donne이 자신의 세계속에서 목격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Donne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조화·불균형 상태를 말하려는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당대의 카톨릭과 영국국교 사이의 반목과 불화를 상정할 수 있다. (Gunpowder Plot이 이 시가 쓰여지지 6년전에 발생했다) 출세지향적 인물이던 Donne이 courtier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욕망의 좌절을 겪어야 했었다는 전기적 사실을 감안하면 당대 제도종교 및 현실정치를 간접 비판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Donne은 그 신분상승의 욕구에 굴복하여 개종하고, 게다가 카톨릭과의 논쟁에서 영국국교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바쳤었고 성직을 택하라는 제의까지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onne은 양심의 외침에 귀기울여 차라리 추방·투옥·죽음을 택했던 그의 친척들과 자신을 대조하며 극심히 번민했음에 틀림없다.¹¹⁾ 자신의 개종이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아닌 현실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의식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이 짐작된다. 따라서 Donne이 당대세계에서 발견하는 부조화와 불균형의 상태는 바로 Donne 자신의 내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Donne이 *The First Anniversary*에서 세계의 분열과 혼돈을 그토록 강렬하

10) William Zunder, *The Poetry of John Donne*,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2), pp.3-6.

11) Gardner, 앞의 글, p.126.

게 외친 것은 Donne 자신이 두 종교 사이에서 겪는 갈등, 즉 이전에는 절대적 힘을 지녔던 종교조차 그 절대적 권위가 의심되고 부정되면서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될 때 겪는 자기 정체성의 붕괴와 그 혼란상의 객관적 상관물이었는지도 모른다. Holy Sonnet XVIII에서 표현되는 정서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Show me dear Christ, thy spouse, so bright and clear.

What, is it she, which on the other shore

Goes richly painted? or which robbed and tore

Laments and mourns in Germany and here?

.....(중략).....

Betray kind husband, thy spouse to our sights,

And let mine amorous soul court thy mild dove,

Who is most true, and pleasing to thee, then

When she' is embraced and open to most men.

무엇이 참 신앙인지 확신하지 못한채 갈등하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유발시킬 뿐 해결은 주지 못한 채 일방적 개종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겪는 Donne의 내면의 분열상이 다음 구절에서 암시된다.

Our blushing red, which used in cheeks to spread,

Is inward sunk, and only our souls are red. (ll. 357-359)

To colour vicious deeds with good pretence,

Or with bought colours to illude man's sense. (ll. 375-376)

뺨의 홍조가 상징하는 순수함, 솔직함, 내면과 외양의 일치 등은 사라지고, 표정과 내적 동기 혹은 의식이 분열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Donne의 자의식이 비쳐진다. 본질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런 鬚色은 버리고, 색깔을 사온다는 표현은 자신의 내면의 외침보다는 사회의 이목과 판단을 더 중시하게 된 Donne의 인간성의 분열상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Donne이 겪은 가장 저독한 질병·타락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렇게 볼 때 decay, death, disease라는 당대 영국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한 진단은 Donne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진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Donne의 영혼의 갈등을 묘사하는 Holy Sonnets에서도 decay, death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또한 그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Donne이 Elizabeth Drury를 "Being all colour, all diaphanous" (l. 366) 라고 묘사하는 것은 각 요소가 자기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우이 잘 통합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순수함을 잃지않는 Donne이 생각하는 이상사회, 이상적 인간의 전범을 Elizabeth Drury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Elizabeth의 적극적인 영향력은 세상의 미와 균형의 상실을 읊는 대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땅과 하늘사이의 호응(commerce)이 장애를 입음으로써 함께 그 영향력도 감소하거나(ll. 399-402), 덕성이 지나치게 성장하여 오히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ll. 413-414). 그녀는 세상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다만 도감을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격하된다(who, though she could not tran-

substantiate/all states to gold, yet gilded every state; ll. 417-418).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것으로 남는 것은 종교적 미덕의 기쁨 뿐이다(1. 433). 말하자면 이 기쁨이야말로 이제까지 Donne이 진단한 질병의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The First Anniversary*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구체적 의미는 *The Second Anniversary*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해석의 한가지 단서는 *The First Anniversary*의 도입부와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That wound was deep, but 'tis more misery
That thou hast lost thy sense and memory. (ll. 28-29).

여기에서 Donne은 자신이 병들어있으면서도 혼수상태(lethary)에 빠져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세상사람들의 감각상실·기억상실을 애도한다. 이 때 '기억'이란 단어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Manley에 의하면 'memory'는 'understanding, will'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혼의 주요한 세가지 기능의 하나이다.¹²⁾ 즉 인간의 영혼이 창조의 첫날의 완전성을 기억하고 현재의 부패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영혼의 도약, 인간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억을 상실했으므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기억'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Donne의 설교에서도 보여진다.

For the rectifying of the will, the understanding must be rectified; and that implies great difficulty; But the memory is so familiar, and so present, and so ready a faculty, as will always answer, if we will but speak to it, and aske it, what God hath done for us, or for others. The Art of salvation, is but the art of memory. (II, 73).

But if it[sin] be above our head, then the brain is drown'd, that is our reason, and understanding, which should dispute against it, and make us asham'd of it, or afraid of it; And our memony is drown'd, we have forgot that there belongs a repentance to our sins, perchance forgot that there is such a sin in us; forgot that those actions are sins, forgot that we have done those actions; and forgot that there is a law, even in our own hearts, by which we might try, whether our actions were sins, or no. (II, 110).¹³⁾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詩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Donne은 보편적인 타락과 죽음의 기운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음을 역설한다.

Let no man say, the world itself being dead,
'Tis labor lost to have discovered
The world's infirmities, since there is none
Alive to study this dissection;
For there's a kind of world remaining still,
Though she which did inanimate and fill

12) Manley, 앞의 글, p.265.

13) Patrick Mahony, "The *Anniversaries*: Donne's Rhetorical Approach to Evil,"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68 (1969), rpt. in *Essential Articles*, p.366.

The world be gone, yet in this last long night,
 Her ghost doth walk; that is a glimmering light,
 A faint weak love of virtue and of good
 Reflects from her on them which understood
 Her worth; (ll. 63-73).

아직도 Elizabeth Drury를 ‘기억’하며 그녀의 가치를 이해(understanding)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Donne의 희망의 근거이며, 이 세상이 아직은 완전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기반이다. 이제 Donne은 자신의 詩作행위 역시 희망의 기반—‘기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God did make
 A last and lasting'st piece, a song. He spake
 To Moses to deliver unto all
 That song, because he knew they would let fall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history,
 But keep the song still in their memory.
 Such an opinion (in due measure) made
 Me this great office boldly to invade. (ll. 461-468).

모세의 노래가 신의 은총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해 씌어진 것처럼, Donne 역시 상실한 세계관, 허물어진 질서,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을 기억시키기 위하여 이 시를 쓰는 것이다.¹⁴⁾ 그리고 이 ‘기억’은 Elizabeth Drury가 누렸던 ‘those rich joys’ (l. 433)와도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대 세계의 질병의 치유책이라는 생각이 *The Second Anniversary*에서 드러난다.

Donne이 *The First Anniversary*에서 주로 이 세상의 분열·혼란상을 그렸다면 *The Second Anniversary*에서는 ‘Of the Progress of the Soul’이라는 제목처럼 Elizabeth Drury의 영혼의 여행과 천상에서의 기쁨을 그림으로써 그가 진정 회구하는 가치, 그리고 당대의 질병의 치유책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앞의 시에서 드러났던 이 세계의 소생에 대한 Donne의 믿음이 *The Second Anniversary* 도입부에서 다시 한번 표현된다.

Nothing could make me sooner to confess
 That this world had an everlastingness,
 Than to consider, that a year is run,
 Since both this lower world's and the sun's sun,
 The lustre, and the vigour of this all,
 Did set; 'twere blasphemy to say, did fall. (ll. 1-6).

앞의 시에서 세상의 타락(fall)—인간의 타락, Elizabeth의 죽음 등을 역설하던 Donne이 이제와서 이 세계는 ‘죽은’(fall) 것이 아니고 ‘저물었다’(set)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윗 구절에 이어지는 Donne의 대담한 비유를 보자.

Or as sometimes in a beheaded man,

14) Mahony, 앞의 글, p.367.

Though at those two red seas, which freely ran,
 One from the trunk, another from the head,
 His soul be sailed, to her eternal bed,
 His eyes will twinkle, and his tongue will roll,
 As though he beckoned, and called back his soul,
 He grasps his hands, and he pulls up his feet
 And seems to reach, and to step forth to meet
 His soul's

……(중략)……

So struggles this dead world, now she is gone;
 For there is motion in corruption. (ll. 9-22)

참수당한 시체도 떠나가는 영혼을 잡으려 하듯 부패한 이 세상에도 생기있는 움직임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¹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Donne은 이 세상을 죽은 시체와 비유하다가 점점 그 비유를 전이시켜 48행에 가면 이 세계가 단지 병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Elizabeth Drury를 기리는 이 시는 시체를 소생시키지는 못하지만 부패는 방지할 수 있는 향료로 비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에 의한 소생가능성을 암시한 후 건강의 비결로는 다른 것을 들고 있다.

For thus, man may extend thy progeny,
 Until man do but vanish, and not die.
 These hymns thy issue, may increase so long,
 As till God's great venite change the song.
 Thirst for that time, O my insatiate soul,
 And serve thy thirst, with God safe-sealing bowl.
 Be thirsty still, and drink still till thou go;
 'Tis th'only health, to be hydroptic so. (ll. 41-48).

죽 Elizabeth를 기리는 자신의 시는 그녀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녀의 역할을 하는 그녀의 자손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찬송시들이 있어야 이 세상은 죽지않고 살아, 하나님 'venite'를 듣게 된다. 따라서 Donne의 시는, 세상의 더 큰 타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와 소생을 가져오지는 못하며 'venite' 이후에는 결국 변해야 하는 지상적인 것이다. Donne은 이제 죽음과 그 이후의 부패를 가정하고 있는 '방부제'(preservative)의 비유를 버리고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진 보다 자유롭고 완전한 기쁨의 세계, 영혼이 누리는 천상의 복락을 노래하려 하며 그 건강한 세계에 도달하는 길은, '신과 만날 그 날을 갈구하며 이 세상을 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상을 잊으라는 Donne의 시구들은 자칫하면 그가 도피주의자라는 오해를 빚을 우려가 있다. 사실 'Forget this rotten world; and unto thee/ Let thine own times as an old story be.' (ll.49-50) 등의 구절은 현세는 무의미하며 내세만이 중요하다는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의 또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잊으라'고

15) P.G. Stanwood, "Essential Joye" in Donne's Anniversaries"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13 (1971), rpt in *Essential Articles*, p.391.

말한 바로 그 Donne이 "A Litary"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for oh, to some
Not to be martyrs, is a martyrdom.

고통스런 현세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순교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Donne은 생각하는 것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우리는 Donne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내세를 택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The Second Anniversary*에 나타난 Donne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내세가 현세보다 우월하다는 점에서는 전통적 견해와 일치하나 현세에서의 삶에 따라 내세의 구원 혹은 저주가 결정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¹⁷⁾ 이 시에서 내세는 현세의 질병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잊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답은 다음 구절에서 암시된다.

Forget this world, and scarce think of it so,
As of old clothes, cast off a year ago,
To be thus stupid is alacrity;
Men thus lethargic have best memory.
Look upward; that's towards her, whose happy state
We now lament not, but congratulate. (ll. 61-66).

즉 이 세상을 잊는다는 것은 *Anatomy*에서의 무비판단적인 망각, 무기력한 혼수상태와는 구별되는 의지적이고도 건설적인 망각이며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기억'인 것이다.¹⁸⁾ 'old clothes'라는 어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성경구절을 상기시키듯 이 세상을 잊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최선의 의지적 행위(will)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잊는다는 것은 천상의 세계의 조화로움을 명상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식의 협소함과 부분성·불완전함과 부조화와 대조되는 천상의 완전함과 조화를 명상하는 것이 지상에 남은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Elizabeth Drury는 우리의 삶의 모본(pattern)이다.

She, who had here so much essential joy,
As no chance could distract, much less destroy;
Who with God's presence was acquainted so,
(Hearing, and speaking to him) as to know
His face in any natural stone, or tree,
Better than when in images they be: (ll. 449-454).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하나님을 맞대고 보리라'는 희망으로 사는 보통

16) 유사한 생각이 "Elegy upon the Untimely Death of the incomparable Prince Henry"의 다음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So God in our desire to die, doth know
Our plot for ease, in being wretched so. (ll 51.52).

17) Zunder, 앞의 책, p.87.

18) Mahony, 앞의 글, p.365.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현세에서부터 신과 매우 친숙했기에 이 땅에서 'essential joy'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The First Anniversary*에서 언급되던 'those rich joys'의 내용이며, 이것이야말로 현세의 부패를 막고, 균형과 색깔의 아름다움의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그녀의 자질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the anatomy of the world'라는 시인—의사 Donne의 진단은 종교적 믿음만이 최상의 양약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그가 도피주의자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벗기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는 'Return not my soul, from this ecstasy' (l. 321)라고 Donne이 말할 때에 과연 그 'ecstasy'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Return not~'이라고 할 때 Donne이 찬탄하는 황홀경이란 다름 아닌 지식의 완전함이다. *The First Anniversary*에서 지식의 변화가 일으키는 정치·사회적 변화, 세계관적 변화를 살폈던 것에서 드러나듯 Donne의 시대에 있어서 지식의 완전성이란 단순한 학문발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우주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하는 핵심이 되는 특징이다.

천상에서의 지식의 완벽함을 말하면서 그는 두 종류의 지식을 구별한다. 'catechisms and alphabets/of unconcerning things'인 'matters of fact' 즉 감각(sense)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천상을 아는 지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때 감각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pedantry'이며 감각의 가르침은 'fantasy'에 불과하다는 Donne의 말은 당대의 경험주의적 풍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때 Donne이 비난하는 것은 신의 질서가 아니라 신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왜곡이며, 또한 감각에 의해 얻은 지식이 부분적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것을 전체라고 믿는 풍조이다.¹⁹⁾

그리고나서 지상에서의 지식의 천박함에 대한 징표로 Donne이 제시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이다.

Thou know'st thyself so little, as thou know'st not,
How thou didst die, nor how thou wast begot. (ll255-256).

Thou art too narrow, wretch, to comprehend
Even thyself; (ll261-262).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은 Donne의 시 곳곳에서 표현되는데 Holy Sonnets에서 그 고민의 속성에 관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Oh, to vex me, contraries meet in one:
Inconstancy unnaturally has begot
A constant habit; that when
I would not I change in vows, and in devotion.
As humorous is my contrition
As my profane love, and as soon forgot;
.....(중략).....

19) Dennis Quinn, "Donne's *Anniversaries* as Celebratio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9 (1969). rpt. in *Essential Articles*, p.372.

I durst not view heaven yesterday; and today
 In prayers, and flattering speeches I court God:
 Tomorrow I quake with true fear of his rod.
 So my devout fits come and go away
 Like a fantastic ague. (Holy Sonnet. XIX).

Helen Gardner가 잘 지적했듯이 이 Holy Sonnet에는 영적인 인간으로 부름받은 자연인의 곤경이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다.²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를 인식하며 자기의 내부 모순과 심각한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즉 자기자신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모순 투성이인 자기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에 대한 무지는 파편화된 이 세상의 불완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예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고민이 *The Second Anniversary*에서도 드러난다.

You are both fluid, changed since yesterday;
 Next day repairs, (but ill) last day's decay.
(중략).....
 ; but whilst you think you be
 Constant, you're hourly in inconstancy. (ll. 393-400).

즉 Donne 개인의 고민이 이 시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Elizabeth Drury는 이러한 고민이 모두 해결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양모의 대상이 된다.

In heaven thou straight know'st all, concerning it,
 And what concerns it not, shalt straight forget. (ll. 299-300),
 Only in heaven joy's strength is never spent,
 And accidental things are permanent.
 Joy of a soul's arrival ne'er decays;
 For that soul ever joys and ever stays. (ll. 487-490)

이렇게 볼 때 *The Second Anniversary*에서 Elizabeth Drury는 완전한 지식의 소유를 통한 인간내면의 모순해결의 상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Donne이 *Anniversaries*를 통하여 계속 세상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詩作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Elizabeth Drury를 명상하는 것이 단순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독자들에게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해서 Donne이 쓴 다른 애가들의 몇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for though I be
 Too narrow, to think him, as he is he,
 Our soul's best baiting and mid-period
 In her long journey of considering God,
 Yet (no dishonour) I can reach him thus,

20) Gardner, 앞의 글, p.131.

As he embraced the fires of love with us.²¹⁾

여기에서 Donne은 Prince Henry의 덕을 명상하는 것은 신을 명상함에 있어서 최상의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신에 대한 이해가 유한하더라도 Prince Henry가 중간 기착지 (mid-period)로서 우리의 신에 대한 이해에 발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Lord Harrington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by these meditations refined,
Can unapparel and enlarge my mind,
And so can make by this soft ecstasy,
This place a map of heaven, myself of thee.

.....(. .).....

And I discern by favour of this light,
Myself, the hardest object of the sight.
God is the glass; as thou when thou dost see
Him who sees all, seest all concerning thee,
So, yet unglorified, I comprehend
All, in these mirrors of thy ways, and end.²²⁾

즉 완전한 지식, 내면의 평온함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에서 우리나라오는 희열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조화와 건강함 이런 것을 향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행위가 바로 덕스러운 자들을 명상하는 것이다. 직접 신을 만나고 그 빛에 자신을 비취볼 수는 없는 나약하고 협소한 시인이, Lord Harrington을 명상함으로써 ‘부드러운’ 황홀경을 맛보게되고 그의 삶과 죽음을 거울로 하여 자신을 비취 봄으로써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Donne의 ‘명상’은 현실에서 유리된 사변, 혹은 도피주의를 뜻한다기 보다는 당대 현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The First Anniversary*에서는 희미하던 불빛(glimmering light)이 *The Second Anniversary*에서는 충만한 광명으로, 구불구불하던 나선이 반듯한 원으로, 부분으로 존재하던 해체된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을 중심점으로 놓고 살던 Elizabeth Drury의 삶을 명상할 때 이 세상과 독자들이 겪게 될 변화를 예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P.G. Stanwood의 다음 발언은 매우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The Second Anniversary is a poem about Elizabeth Drury, but it is also, and more important, about the creative power of the soul itself, above all about the power of the poet who interprets and prophesies and gives form to the highest truth.²³⁾

Donne이 *The First Anniversary*에서는 ‘세상의 해부’를 통하여 세상의 병을 진단하였다면 *The Second Anniversary*에서는 Elizabeth Drury가 이 세상의 죄와 오염에서 벗어나 누리는 ‘영혼의 역정’을 보여주고 그 역정에 독자도 동참시킴으로써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21) "Elegy upon the Untimely Death of the incomparable Prince Henry" ll 83-87.

22) "Obsequies to the Lord Harrington, brother to the Lady Lucy, Countess of Bedford" ll 11-14, ll 29-34.

23) Stanwood, 앞의 글, p.390.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썸이다. 세상이 현재 '시체'(carcase)일지는 모르나 우리 독자들은 그 시체를 먹고살피 오염에서 벗어나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The First Anniversary* ll. 75-77. *The Second Anniversary* ll. 55-56).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시인 Donne이 있기에 비로소 밝혀진다. Donne은 시인이자 의사이며 예언자이자 부패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형질변화를(transubstantiate)시킬 수 있는 사제이다.²⁴⁾ Elizabeth Drury가 세상에 형태를 부여하고 골격을 만들어주며 의미와 정의와 명칭을 주었던 것처럼(*The First Anniversary* ll. 37, 38) Donne 역시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Donne의 생각은 영국국교의 특징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Helen Gardner가 찰스국왕시대의 성직자들의 특징으로 지적하는 '합리적 경건성'(reasonable piety)의 면모가 Donne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다.²⁵⁾ Donne의 설교가로서의 사상과도 맥이 닿는 특성인 내세지향성의 거부, 반금욕적·반신비주의적 사상(antiascetic and antimystical bias), 비범하고 영웅적인 것으로 신성함을 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聖化(sanctification)]를 강조하는 것, 인내·분별 등 극적요소가 없는 덕목을 강조하는 것 등이 *Anniversaries*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당대세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종교적 믿음과 명상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인으로서 일역을 담당하려했던 Donne의 모습이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이루려는 노력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이 1611, 1612년에 Donne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비록 Donne이 1615년 성직자가 되어 시인으로서의 노력을 잠시 그치기는 하지만, *Anniversaries*에서 당대 세계의 질병 혹은 Donne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Donne이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철학이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회구했다는 사실은 Donne의 성직입문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유효하리라고 생각된다. 아니 좀 더 나아가 질병의 원인 분석과 치유에 대한 깊은 사색은 결국 시인보다는 성직자로 사는 것이 질병의 치유에 보다 효과적일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이끌었는지 모른다. 'I am the trumpet' (*The Second anniversary* l. 527)이라는 Donne의 말이 여러 울림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24) Stanwood, 앞의 글, p.395.

25) Gardner, 앞의 글, p.127.